

유통업계,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돌입

‘알뜰·실속’ 가성비 편성 확대... “부담없이 명절 준비하세요”

**이마트 10만원 미만 축산세트 확대
홈플러스 할인·상품권 증정 혜택
롯데마트 물가안정 기획세트 마련**

유통업계가 설 명절 선물세트 예약에 돌입한 가운데 ‘가성비’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난해 프리미엄화 했던 명절 선물세트는 올해 3고 사태를 맞으며 트렌드가 ‘알뜰과 실속’으로 전환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이달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명절 선물세트는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지만 가성비를 살리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예년 보다 사전예약을 약 열흘 이상 앞당겼다. 올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은 약 42일에 달한다.

이마트는 올해 설 선물세트 비중에서 축산세트 준비 물량을 지난해 대비 대폭 늘렸다. 특히 10만원 미만 축산세트 준비물량을 60% 늘렸다.

문주석 이마트 축산팀장은 “축산 선물세트에서 양극화 소비 현상이 매년



모델들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2023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소개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내년 1월11일까지 ‘2023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심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가성비 세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크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할인가 기준 2만~3만원대 과일 선물세트와 1만~2만원대 바이오퍼블릭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1+1 올리브유 선물세트 등을 준비해 풍성한 가성비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2만~3만원대 과일

선물세트는 총 8종이며 이마트 건강기능식품 PL 바이오퍼블릭도 세트도 총 5종을 선보인다. 여기에 더해 2개 구매 시 10% 할인해 고객 혜택을 더했다.

더불어 설 사전예약에서 공동 편당 구매를 진행한다. 공동 편당구매는 상품당 참여 인원이 모이면 특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추석에 도입했다.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전 채널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전예약을 이용하면 폭넓은 할인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매년 사전예약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추석 사전예약 비중은 60%를 넘었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홈플러스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홈플러스도 특히 고객 수요가 높은 5만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를 전체 비중의 70%까지 늘리며 ‘가성비’를 챙겼다.

롯데마트는 명절 대표 인기 선물 세트인 한우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가안정 기획세트’부터 하이엔드 한우 마블라인과 전문점 RMR 상품 등 ‘프리미엄 미식’ 선물세트, 친환경 선물세트까지 다채로운 선물세트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설 선물세트로 가장 인기 많은 축산 선물세트를 한정특가로 선보인다. 1등급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한우 갈비 세트 2호 500개, 냉동 꽃갈비 미국산 소프라이름 LA식 갈비세트 1200개를 모두 10만원 안 되는 가격에 한정판매한다.

행사기간 동안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최대 30% 할인 혜택도 제공하며 오프라인 회원 대상 특별 할인, 구매 수량에 따른 덤 증정, 3만원 이상 구매시 전국 무료배송 등 혜택도 마련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는 모두 롯데온 내 롯데마트몰에서 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동일한 혜택으로 사전예약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가 가능하다”며 “올해 3고 사태를 맞아 가성비가 중요해지며 더욱 사전예약 기간이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통업계 신제품

“미트칠리 버거 맛 보고 연말연시 여행용품 챙기세요”

**맥도날드 한정판 신메뉴 출시
100% 당첨 원더랜드 프로모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발 빠르게 한정판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QSR(퀵서비스레스토랑) 업계를 이끄는 맥도날드 역시 특별한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신메뉴 ‘미트칠리 버거’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미트칠리의 이국적인 풍미를 살리고, 새하얀 사워크림으로 마치 눈 내리는 듯한 비주얼을 연출해 크리스마스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다져 토마토, 칠리 시즈닝과 함께 섞은 맥도날드 정통 미트칠리 소스와 100% 순쇠고기 패티, 베이컨이 만나 한입 베어 물면 풍성한 고기의 짭짤 육즙과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맥도날드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미트칠리 버거’ 2종을 출시하고, 신메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원더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맥도날드

일반 크림을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사워크림은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지녀 미트칠리를 포함한 여러 식재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맛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맥도날드는 신메뉴 출시와 함께 참여만 하면 100%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더랜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해외여

행의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맞이한 크리스마стин 만큼 여행 관련 상품들을 다채롭게 마련해 연말 연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프로모션 상품은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비롯해 맥도날드 덕후들을 저격할 다양한 여행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후렌치 후라이 모양을 형상화한 여행용 캐리어로, 맥도날드의 상징인 노란색과 빨간색을 활용해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또, 휴대성과 보관성을 모두 고려한 22인치로 제작돼 많은 이들의 소장 욕구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 코카콜라 로고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한 미니 캐리어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야외활동이나 캠핑 시에 활용도가 높다.

이 외에도 맥도날드, 코카콜라의 감성을 담은 스티커를 활용해 내 마음대로 꾸미는 여권 케이스 2종, 후렌치 후라이와 보틀 모양으로 만든 귀여운 러기지 택 2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리온
오!그레놀라 신제품 2종**

오리온은 간편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처’의 신제품 ‘오!그레놀라 식물성 100%’ 2종을 출시하면서 최근 성장하는 식물성 식품 시장으로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 식물성 100%는 순식물성 원료만으로 만들어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하고 단백·고식이섬유의 균형 잡힌 한 끼를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신제품은 국산팥기, 크랜베리, 코코넛칩 등 통과일을 큼지막하게 넣어 상큼한 맛을 살린 ‘오!그레놀라 통과일’, 헤이즐넛, 피칸, 아몬드를 통째로 넣어 입안 가득 씹히는 넛츠의 고소한 맛이 특징인 ‘오!그레놀라 통넛츠’ 2종으로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빅데이터 기반 급식 식수 예측

2026년까지 사업장 100곳 도입 계획

급식 사업을 전개하는 풀무원이 빅데이터 기반의 식수 예측 시스템을 급식 현장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풀무원의 생활 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엔컬처는 최근 3년간의 식사 이용 패턴 빅데이터를 분석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이 권장 식수를 제안하는 ‘식수 예측 시스템’을 급식 사업장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식수 예측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현장 매니저의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예상 식수를 판단해왔으나, 근무 경력과 경험에 따라 식수 예측이 상이해 잔반이 발생하거나 품질 이슈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풀무원은 이번 식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잔반 발생으로 인한 환경적 비용과 식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고, 메뉴 품질 이슈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의 급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무원은 현재 세 군데 대형 급식 사업장에서 ‘식수 예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푸드엔컬처 급식 사업장 100여 곳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美 현지 제빵공장 설립 추진

공장부지 물색... 내년 착공 목표

CJ푸드빌이 미국에 제빵공장 설립에 나서며 미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미국에 ‘뚜레쥬르’ 제빵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공장 부지를 물색하는 중이다.

미국 제빵공장 설립은 뚜레쥬르 매장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현지 매장에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푸드빌은 올 연말까지 미국 22개주 진출 계획을 공개했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뚜레쥬르 매장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미국 매장을 열었고 2009년부터는 가맹점 위주로 매장을 늘려가면서 현재 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푸드빌이 미국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뚜레쥬르 국내 지점은 1300여개로 수년째 숫자가 정체돼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해 시장확대의 적기라는 평가다.

CJ푸드빌 미국 법인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선 기자

**일동후디스
후디스 소화 편한 우유 2종**

일동후디스가 유당을 분해해 깔끔하고 편하게 소화되는 ‘후디스 소화 편한 우유’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인들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우유 섭취 후 배 아픔이나 소화 불량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효소 분해 공법을 사용한 유당분해 멸균우유를 선보였다.

‘후디스 소화 편한 우유’는 1급A 원유에 유당분해효소를 첨가해 원유의 영양성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당만 깔끔하게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칼슘, 고아연,식이섬유 1000mg 등 풍부한 영양소를 더해 우유의 균형을 맞췄다.

/신원선 기자